

인공지능과 문학 감성의 상호 연결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terary Sensibility

손승희[†]

Seunghee Sone[†]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literary stud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the common theme of human emotions to foster complementary advancements in both fields. By adopt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per investigates emotion as a shared focal point, analyzing various emotion-related concepts from both literary and AI perspectives. Despite the scarcity of research on the fusion of AI and literary studies, this study pioneer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thin the humanities, anticipating future developments in AI. It proposes that literary sensibility can contribute to AI by formalizing subjective literary emotions, thereby enhancing AI's understanding of complex human emotions. This paper's methodology involves the terminology-centered extraction of emotions, aiming to blend subjective imagination with objective technology. This fusion is expected to not only deepen AI's comprehension of human complexities but also broaden literary research by rapidly analyzing diverse human data.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collaborative dialogue between literature and engineering, recognizing each field's limitations while pursuing a convergent enhancement that transcends these boundarie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ry Studies, Human Emotions, Critical Structure, Narrative Technique, Ai and Literature Convergence

요약

본 논문은 문학 연구와 인공지능의 접점을 감정 영역에서 찾고, 그 연계성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과 발전을 지향하는 문학과 기술의 융합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문학과 공학에서 각각 상대를 보는 관점을 사용하고 공통의 기반인 감성의 주제를 두고 비교 점검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의 융합 연구 결과물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공지능의 지향점을 두고 인문학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문학적 감성을 통해 문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할 방안으로서 주관적인 문학의 감성을 추출하여 인공지능의 객관적 입력을 위한 정형화 작업에 참여할 때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감성의 용어 중심 추출 작업을 거쳐서 인간 감정에 접근하는 주관적인 상상력과 객관적인 기술력이 조합된다면, 광범위한 인간의 자료를 분석하는 속도감 있는 문학 연구의 확장은 물론, 복합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상대하는 깊이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한 마주보기 통과 의례를 거쳐서 학제적 연구의 장점을 살린 논의는 두 학문 분야를 별개로 볼 때의 한계 또한 인정하고 부족한 측면을 상호 보완하는 융합 연구의 긍정적 측면을 갖게 될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문학 연구, 인간 감정, 비평 구도, 서사 기법, 인공지능과 문학 융합

[†] 손승희: 안양대학교 교양 대학 조교수 / E-mail: shsone@anyang.ac.kr / TEL: ***-***-***

1. 서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개념적으로 정보공학 분야의 인프라 기술이다 보니 사회적 현상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인간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기술적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대화형 지능 로봇이 이미 출현된 상황이고, 인공지능의 기술적 활용 범위는 자율 주행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학문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는 예측 역시 현실로 드러나면서, 어학의 코퍼스 사용에서 발전된 모습을 포함해서 인문학의 연구 방법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문학 창작의 현장에서 이미 인간과 공동으로 장편 소설을 출간하고, 최근 미술 전시에서 인공지능의 창작품이 우승 작품으로 평가되는 일도 가시화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러한 기술적인 적용 분야의 확장과 작동 속도의 증가 방향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실상 인간을 닮는다는 인공지능의 정의에서부터 지성 측면의 기능에만 치우칠 수 없고 인간의 감정도 그 발전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인공지능에서는 감정 인식을 거친 분석 및 해석에 따른 대응이 포함된 감정 인식 시스템이 장착이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예술로 대표되는 감성 영역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공학 기술의 조합은 그 필요성에 비해서 인접성이 약하다. 실제로 인문학과 감성 공학의 학제적 연구물의 양이 부족한 점은 그래서 놀랍지 않다. 문학과 공학의 연결을 상정해 볼 때 과연 필요한지 또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학문인지 그 인접성이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공학의 최첨단 휴먼 인터페이스를 두고 컴퓨터 공학의 범위 너머 학문간의 연합적 논의의 결과물을 양적으로 파악해 볼 때, 학제적 연구 논문들에 관련된 학문 분야 중 예술과 인문학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h et als., 2020).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연구 동향을 통계적 수치로 살펴 보더라도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문학 관련 학제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Oh et als., 2020).

사실상 문학과 공학은 인접성이 강한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 차이점으로 구분되는 대조적인 학문 영역으

로 간주된다. 학제적 대상으로 보기에, 두 학문의 방법론, 근거 자료, 중점 영역, 맥락 이해 등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강해, 지금까지 예술과 인문학 분야 관련 감성 컴퓨팅 융합 연구가 정보 사회 과학분야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Oh et als., 2020).

그런데 역시 놓치기 쉬운 점은 인공 지능이 인간을 밑그림으로 갖듯이 문학 역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면서 인간의 이해에 접근하는 분야라는 것이다. 예술과 기술의 차이는 사실 영어 단어 기예(art)의 어원에서 겹쳐진다. 문학의 창작과 공학의 제작은 그 바탕에서 동일하다. 어느 학문 분야도 가장 큰 공통점은 인간의 이해일 것이다. 인간의 머리와 가슴을 함께 봐야 하듯이 인공지능은 그 정의에서부터 결국 감성 접근 기술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학과 공학의 학문으로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객관적 기술력과 주관적 상상력의 조합이 가져올 시너지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문학 연구자의 접근 방법으로 문학 연구에서 감성 영역의 객관화를 위한 도구를 찾는 방향으로 전달 가능한 규칙을 찾아 본다. 그러한 논의의 지향점은 인간 감정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춘 미래의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문학 연구와 공학 기술의 상호 발전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인공지능과 감성의 연결은 어울리는가 필요한가. 기능 중심의 확산 현장에서 감성의 언급은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 중심의 소비자 분석의 경우는, 소설 창작과 미술 수상작으로 인간 세상에서 인정 받은 문예 감성과는 다른, 소비자 분석을 위한 감성이다.

문학 예술 분야의 주조를 이루는 감성의 주제는 컴퓨터 공학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감성 컴퓨팅은 컴퓨터 공학의 융합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공학적인 ‘감성’이 기술 현장, 예술 무대에 이어 학제적인 연구 주제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인다.

인간의 감정 인식과 대응을 위해서 인공지능과 감성의 조합은 필요하다, 인간을 밧그림으로 갖는다는 뻔수 없는 숙명을 지닌 인공 지능은 인간 감정의 인식이 가능한 기계 인간인 것이다. 본 연구는 감성의 인식 분석으로 감성의 주제 범위를 좁혀서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대하는 방식의 발전된 모습을 내다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그림자 같은 인간 존재의 본성적 특징인 감성을 기계가 갖고, 기계 인간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상대 인간을 감정 면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정된 시대에, 인간 닳기를 한 차원 높은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의 발전된 모델을 상정한다.

2.1. 연구 목적

문학은 공학과의 학제적 연관성이 멀게 느껴질 만큼 연구 방법상 거의 대조적일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는 감성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면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의 제작과 문학의 창작 사이에는 기술과 예술 간의 거리감 너머로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밧그림이 존재한다. 인간의 감정을 제외한 채로 인간을 닳거나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발이든 연구이든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문학의 감성은 인공지능의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미묘하게 범주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요컨대 인공지능에 장착하기 위한 문학 감성의 객관화를 향한, 인공지능 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될 시도에 해당될 것이다. 이제 미래 인공지능의 인간 감정 수용 과제를 두고, 문학과 공학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기대하며 인공지능과 문학의 감성 조합에 도전해 본다. 비평 구도와 작품 구조를 통해 문학적 감성 요소의 추출 작업을 내용으로 도전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과 문학은 객관적/주관적, 수치-기반-측정/언어-매개-재현, 사실/상상으로 대비되는

데, 인간 감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방법은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의 특성이 반영된 대조 항목의 마주보기를 거쳐서 상호 보완적으로 각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합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의 대조적 특징을 정리해 본다.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를 두고 인간 감정에의 접근 방법, 근거 자료, 중점 영역, 맥락 파악 정도에 관련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2.2.1. 접근방법

인공지능은 계산적 방법,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감정의 이해에 접근한다. 그것은 패턴을 감지하고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 텍스트, 발화 음성 또는 이미지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의존한다. 인공지능은 종종 객관적인 측정값과 정량화 가능한 감정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학 연구는 문학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인간 감정의 이해에 접근한다. 그것은 언어, 서술 및 인물 형상화를 통해 표현된 감정적 뉘앙스를 탐구하기 위해 꼼꼼한 읽기, 텍스트 분석 및 문학적 비평에 의존한다. 문학은 종종 주관적인 해석과 인간 감정의 복합적 요소를 강조한다.

2.2.2. 근거자료

인공지능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 고객 의견 또는 센서 데이터와 같은 구조화된 것과 구조화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감정 정보를 추출한다. 그것은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 텍스트 감정, 얼굴 표정, 음성 억양 또는 생리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명시적인 감정 단서에 의존한다.

문학연구는 주로 감정 탐사의 주요 원천으로서 소설, 시 또는 희곡을 포함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감정 전달에 사용된 언어, 이미지, 상징 및 서술 기법에 의지한다. 문학연구는 텍스트 안에 내포된 내재적인 감정 단서를 탐구하고 그 이면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널리 고려한다.

2.2.3. 중점 영역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넓게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감정을 미리 정의된 범주로 분류하거나 정서의 양극 사이 정서를 정량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것은 다양한 상황의 일반화 및 데이터 소스에 확장성을 지향한다. 인공지능은 감정 분석에서 효능과 처리 속도를 우선한다.

문학연구는 특정 문학 작품에서 표현된 인간 감정의 복잡함과 미묘함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의 깊이를 우선시한다. 그것은 개별 텍스트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해석, 작품에 전달된 감정의 미묘함, 모호성 및 주관성에 가치를 둔다.

2.2.4. 맥락 파악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data-driven)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에 관련된 맥락적 이해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은 특정 상황 내에서 감정 패턴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문학연구는 문맥의 이해를 강조한다. 그것은 문학에 묘사된 문화적, 역사적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한다. 문학 연구는 인물 감정의 해석에서 작가, 텍스트,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2.3. 연구 동향

인공지능의 인간 감정 분석에 관계된 선행 연구로서 스피치 분석, 색깔 감정 분류 등 다각도의 접근법이 시도되었다(Jung, 2023). 인간 감정 인식 기술의 바탕으로서 감정의 심리학적 범주를 두고 로버트 플루치(Robert Plutchik)의 감정 수레바퀴(Wheel of Emotions)로 가지화된 감정 데이터 베이스 역시 업데이트되고 있다(Chang, 2012). KoBERT 모형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다중감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미세한 27개 인간 감정 범주로서 감정 인식 데이터 셋 오픈소스로 공개된 구글의 대규모 데이터 Google AI도 나와 있다.¹⁾ 이러

한 추세에 힘입어 문학 감성과 인공지능을 연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문학 연구에서 이론의 성격, 비평의 객관성 혹은 과학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론적 정초 작업은 인식과 언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Kim, 1993). 이에 따르면 문학 비평이 가치 판단 지체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자연과학적인 객관성의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객관성을 사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Kim, 1993)는 도전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3. 문학과 감성

흔히 세계 문예 사조를 이성과 감성의 주조 양상이 번갈아 반복되는 시대적 변천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엘리엇(T. S. Eliot)은 20세기 문학 비평가로서 영국 문학사를 개관하면서 당대 이전의 감수성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 전 시대의 사상과 감정의 통합을 회복한 20세기의 문학적 특질을 부각시켰다. 이제 인간의 감정을 두고 인간의 이성과의 대립 구도를 상정한 서양 문예사조를 배경으로, 사상과 감정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지점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장착하기 위한 문학 감성을 객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해당되는 3장의 논의에서는 미래 인공지능의 인간 감정 수용 과제를 두고, 문학 비평의 장 및 작품의 서사 구조를 통해 문학적 감성 요소의 객관화 작업을 시도한다.

3.1. 문학사와 감성

문예사조의 흐름을 살펴 보면, 이성과 감성의 중점이 교차되면서 발전 이전과 이후의 보완으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진행 구도가 드러난다. 그러한 변곡점 위에서

1) Ko(Korean)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from <https://www.letr.ai/blog/tech-20221124-Google-AI> from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7>

흔히 이성 중심의 주지주의로 알려진 20세기 모더니즘의 한 지점을 두고, 감성에 대한 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상과 감정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16-17세기 시인들을 재평가하면서 20세기 문학의 특징적인 메커니즘을 감정과 사상의 통합 기제(a mechanism to fuse thought and feelings)로 명명한 엘리엇의 비평안에 주목해 보면(Lee, 2011),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생각의 표현과 감정의 수용의 접점에서 소통하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비평가로서 엘리엇은 20세기 작품을 통해 사상을 감성처럼 느끼도록 융합해 내는 재현의 기제를 발견하고 그 이전 시대의 감수성의 분열(a dissociation of literary sensibility)에서 통합으로 변화된 양상을 호평했다(Lee, 2011). 또한 Eliot(1932)의 객관적 등가물(objective correlative) 논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인 햄릿 비평에서 등장하는데, 인물의 내면을 밖의 풍경에 대응시켜서 감정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문학적 감수성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통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 작가의 기법은, 문학 연구와 감성의 주제에 관련하여 감정의 표현과 수용의 관계망에 직접 다가가는 논의로 삼을 수 있다.

3.2. 비평 구도와 감성

Lodge(1972)는 작품을 중심으로 세상, 청중, 작가를 둘러싼 삼각 구도를 비평의 객관적 지평 논의에 동원한다. 이러한 삼각형은 문학사적인 중점의 이동 궤적을 물론 일반적으로 문학 비평의 세 요소를 둘러싼 해석의 사회적 지평을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의 반영을 축으로 하는 모방의 이론, 청중에의 영향을 축으로 하는 수용의 이론, 작가의 창작을 축으로 하는 표현의 이론에 이어 작품에 구심점을 두고 자족적인 의미를 살린 객관의 이론이 전통적인 비평의 구성 요소가 된다(Lodge, 1984). 여기에 작품과 작품 간의 관계 축을 추가하면 작품 중심 이론이 확장되면서 Keesey(1987)이 제시하는 비평의 맥락과 좌표가 나온다. 다음과 같이 작품 중심으로 네 가지 요소의 연결 네트워크로 가시화된다(Fig. 1).

감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문학 연구를 연결 짓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그 네 가지 역할을 가정해서 문학 비평적 구도(Keesey, 1987)를 재편해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역할을 각각, 독자 중심의 수용 이론적 틀에 독자 위치로, 작가 중심의 표현 이론적 틀에 작가 위치로, 세상 중심의 모방 이론적 틀에 세상 위치로, 작품 중심의 형식 비평적 틀에 작품으로, 그리고 작품 사이의 상호 텍스트 이론적 틀에 다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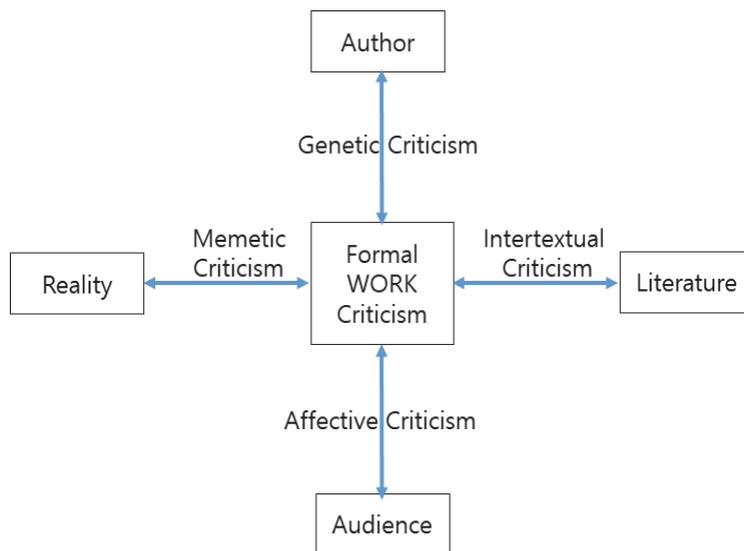


Fig. 1. the diagram of critical contexts and the conceptual map it supplies (Keesey, 1987)

위치로 부여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맡는 각각의 경우를 가정함에 따라 인간 감정이 들어 설 자리를 비평의 맥락에서 점검하기로 한다.

3.2.1. 인공지능 세상

반영 이론-모방 비평 (reflective theory - mimetic criticism)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world → human emotions to be reflected on →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inference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세상으로서 인공지능은 인간 감정이라는 반영 모체를 갖고 세상과 비교를 전제로 둔 추론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이미 나온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을 소재로 다른 작품들을 설명하는 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3.2.2. 인공지능 독자

실용 이론-수용 비평 (practical theory-affective criticism)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ader --> to approach human emotions as a text --> with Literary sensibility in context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독자로서 인공지능은 언어 텍스트로 인간 감정에 접근해서 다양한 맥락에 따른 문학 감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 감정의 수용과 대응, 해석 통한 의미 도출 상황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라 볼 수 있다.

3.2.3. 인공지능 작가

표현 이론-생성 비평 (expressive theory-genetic criticism)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uthor --> to evoke human emotions in a text --> with structural components in analysis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작가로서 인공지능은 언어 텍스트 안에 인간 감정을 환기, 구조적 요소 분석과 함께 논의된다. 인간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창작의 주체로서 실제 장편소설 등 출간한 최근의 현상을 설명하는 틀로 적용 가능하다.

3.2.4. 인공지능 작품

객관 이론-형식 비평 (objective theory - formal criticism)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ext → a new genre to emerge? human emotions to be added → with many

critical approaches as well as a formal approach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텍스트로서 인공지능은 언어로 치환될 요소를 찾고, 인간 감정이 개입될 곳을 발견해서 전에 없던 장르로서 문학 작품의 새로운 종류 출현에 관한 논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문학의 언어와 컴퓨터의 수학을 매개할 수 있는 측정 수단의 간극 메우기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3.2.5. 인공지능 또 하나 작품

상호 텍스트 비평 (intertextual criticism) 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other text? → to accumulate and develop human knowledge → with deep learning from big data analysis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공지능은 인간 지식의 발전 및 축적과 아울러 빅 데이터 기반의 딥 러닝 기반의 분석을 동원해서 (인공지능으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은 인공지능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인공지능 사이의 비교와 차이점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할 행위가 필요하다. 상호 텍스트로서 인공지능은 자족적 텍스트로서 의미가 곧 존재인 위치가 수립되어야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세상-독자-작가-작품-다른 작품의 위치에 인공지능의 기능을 부여해서 각각 인공지능의 감성이라는 표제어에 초점을 두고 작품 중심의 현대적인 비평 연계 구도를 감성 중심으로 재편해 보았다. 문학 비평적 구도를 그대로 두고 각각의 중심 항에 인공지능을 대체할 경우에 현재 인공지능의 활발한 진출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친 도식적 대응으로 전제부터 인간 감성과 연결 짓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다섯 가지의 감성적 요소 추출의 결과 중 결국 독자로서 인공지능의 좌표를 본 연구에서 적합한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자체의 감정을 다루기보다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기능에 주목하기에 걸려진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문학 비평의 구도에서 독자의 위치에 두고, 인공지능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

에서 정량적, 객관적 요소를 찾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서사 기법과 반복 주제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시도에서 컴퓨팅에 감성을 조합한 감성 컴퓨팅 연구처럼 문학에 기술을 접목해서 문학 감성의 정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감성 컴퓨팅의 마주보기에 해당될 계측 감정론(calculative/computable emotions)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3.3. 작품 서사와 감성

앞서 감성 컴퓨팅의 감성 분석이라는 용어에 사용된 감성(sentiment)과 다른 의미의 감성을 가리키는 수용 비평(affective criticism)을 문학 비평 구도에서 찾았다면,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기본적 개념인 기술(technology)을 작품에서 발견되는 기술적 요소로서의 서사 기법(narrative technique)과 연결하고,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 이미지로서 정량적 요소를 지닌 문학적 모티브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이제 영웅담(hero stories)의 예를 들어 문학의 서사 구조와 모티브를 탐색해 보겠다. 문학적 감성의 기술적, 정량적 유사 지표 찾기를 통해 대립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는 목표 아래 구체적 작품 논의로 옮겨가고자 한다.

3.3.1. 영웅담의 구조와 감성

언어로 매개되는 문학 작품의 서사 기법에서 이야기의 전개 구조는 문학 감성의 정형적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계산 가능하다는 뜻에 수의 사칙 연산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추상적인 의미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영웅담의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와 선택 요소의 구조적인 결합을 통해 영웅담의 감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다.

신화 및 민담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웅담을 두고 서사 구조의 공통점을 찾고자 씨름했는데, 그 중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이 추출해 낸 가장 간단한 3단계 전개 구조를 소개한다(Haugnes & Maher, 2017). 강의안 형태로 제시된(Haugnes & Maher, 2017)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단계인 도입부에서 영웅은 여정을 시작한다. 2단계인 본격적 경험 과정에서 영웅은

도전 과제를 수행해 낸다. 3단계인 결말부에서 영웅은 여정을 통해 변화를 겪고 귀환한다. 이러한 3부 구성은 시작-중심-끝의 익숙한 구분이어서 기억하기도 전달하기도 쉽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각각의 영웅담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여정 시작 전 변수가 있다. 목적지만 봐도 다른 지방, 내면 세계, 상상의 영역 등 가지각색이다. 여행을 기꺼이 혹은 책임감을 갖고 수용하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결국 집을 떠나 여정에 오른다. 감성적 개입은 기쁨, 의무감, 두려움, 불안 등의 형태로 선택적이다. 서사 구조상 무조건 여행이 예정되어 있는 영웅의 행위처럼 감정 요소가 직접적으로 개입될 것 같지 않은 데도 개별 작품을 통해서는 영웅의 배경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감정이 환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영웅담을 따라가는 독자의 공감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영웅담의 본론에 해당되는 변화무쌍한 2단계와 흔히 영웅의 귀환으로 알려진 영웅담의 마무리로서 3단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을 지 그 다양함을 예견하기 어렵지 않다. 그에 따라 작용되는 인물의 감정 층위와 발생 빈도는 독자에게도 마치 그 영웅과 함께 여정을 겪는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3.3.2. 영웅담의 주제와 감성

감성의 주제적 측면에서 영웅담에 접근해 보면 우선은 서사 진행 구조처럼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를 칼로 자르듯 구분 짓기 어려운 양상이 존재한다. 복잡한 감정 교류가 한 인물로서 영웅의 주변 상황과 다른 등장인물 사이에서만 아니라 작품 주인공으로서 영웅과 공감대가 확산된 독자층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 대개 논의되는 비극의 카타르시스도 영웅 당대의 극적 장면을 통해 독자와 동일시된 피드백의 효과로서 설명된다. 그런데 영웅담은 서사 구조 2단계에 내정되어 있듯이 영웅의 도전과 성공으로 귀결된다. 이 경우 희랍 비극에서처럼 영웅의 몰락이 아니어도 다른 장면을 통해서 슬픔이 정화되는 느낌을 자아낼 수 있다.

Table 1. Recurrent emotions in hero stories

| Category | Details |
|-----------------------------|--|
| Conflict Struggle | Heroes face a variety of challenges, obstacles, and conflicts throughout the story. These struggles create tension and emotional engagement among audiences who are rooting for the hero to overcome adversity. |
| Fear Vulnerability | Heroes are often portrayed as vulnerable and fearful characters despite their strength and courage. Their vulnerability calls the audience to a deep sense of empathy and allows them to empathize with their emotional journey. |
| Self-doubt Inner Conflict | Heroes are not always sure about their actions, and they may have doubts and doubts about themselves. |
| Hope for Victory | The characteristic moments of triumph in which the hero overcomes challenges and achieves goals inspire hope and joy in the audience, reinforcing the connection of positive emotions. |
| Loss Grief | Heroes may also experience losses, such as the death of a loved one or the failure of a mission. Such moments of grief add emotional depth to the narrative and shape the motivations and actions of the characters. |
| Love and Unity |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emotional bonds and motivation, can generate emotions such as happiness, longing, and the heart. |
| Resilience from Frustration | Heroes who have made mistakes or struggled in the past are saved. Themes of forgiveness and personal growth provoke an emotional response, creating catharsis. |
| Inspiration Admiration | The hero embodies qualities that the audience admires and aspires to. Emotional factors such as admiration, awe, and inspiration motivate the audience to emulate heroic traits in their own lives. |

독자로서 인물과 공감하며 여정을 따라가는 과정의 다음과 같은 감성적 요소들은 흔히 알려진, 사랑, 죽음, 좌절, 성장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반복되면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감성이 어디에서 어떤 관계망 속에 나오는 지 여러 영웅담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를 탐구해 본다.

서사의 정서 기제로서 감정 모티프는 관객과 등장 인물을 연결하고 서사를 전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웅담은 공감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캐릭터를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일구어 낸다. 영웅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관객은 그들의 여정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영웅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감정 범주는 다음과 같다(Table 1).

4. 결론 및 기대 효과

4.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공지능의 인간 감성 수용 과제를 두고, 문학과 공학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기대하며 인공지능과 문학적 감성의 조합에 처음으로 도전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에 장착하기 위한 문학 감성의 객관화를 위해, 기계적 수량적 전달 가능한 정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노력에 해당된다.

비평 구도와 작품 구조를 통해 문학적 감성에서 객관적 요소의 추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 과정에서 인간의 복합적 맥락을 고려하는 문학적 감성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그러한 감성의 탐지와 구현을 위해서 인공지능의 제한된 감성 인식 방식보다 다양하고, 단순한 해석의 표현보다 미묘하게 범주화 될 필요성이 뒷받침된다.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인물과 독자의 감정 교류를 전제로 갖는 문학 서사의 감성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본 연구가 미래형 인공 지능이 인간 감정론에 직면하게 될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갔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인간 감정에 접근하는 주관적인 상상력과 객관적인 기술력이 조합된다면, 복합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상대하는 깊이 있는 인공 지능의 개발과 더불어 광범위한 인간의 자료를 속도감 있게 분석하는 문학 연구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2. 기대 효과

4.2.1. 인공지능 입장의 상호 연결 장점

문맥적 이해. 문학 연구는 텍스트가 작성되고 해석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을 형성하기 위해 문맥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인간의 감정 인식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 문학은 복잡한 주제, 다중 해석 및 의미 계층을 다루며, 인공지능은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탐구를 장려하는 열린 언어 해석의 미묘한 특징을 배울 수 있다.

감정적 지능. 문학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문학 텍스트의 감정 실마리를 밝혀내고 풀어내는 데에 사용된 인물의 감정상태, 특정 감정을 환기하는 언어의 분석, 서사 전체의 감정 표현 패턴을 감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4.2.2. 문학 연구 입장의 상호 연결 장점

텍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NLP). 자연어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 시, 연극 등 많은 문학 언어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텍스트 분류, 감정 분석, 주제 모델링, 그리고 언어 생성과 같은 숨겨진 구조를 포함하는 작업을 포함된다.

디지털 인문학 및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은 문학 적 텍스트, 역사 문서 또는 중요한 해석의 대규모 수집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또한 영향 관계나 연구 동향을 가시적인 패턴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체 식별로 저자 공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쓰기 스타일, 어휘 사용, 구문 패턴 및 기타 언어 기능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통계적 모델 및 기계 학습 기술을 통해 저자의 고유한 글쓰기 특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2.3. 공학과 인문학의 조합

인공 지능 개발을 앞두고 인문 학자와 공학자 사이의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연구 동향과 배경 지식을 공유하면서 문학 연구와 인공 지능 개발자 사이에서 작품 포함 데이터 베이스를 점검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인간 감정의 범주를 둘러싼 연구 배경의 차이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문학 감성과 공학 감성의 용어를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 방향의 교류는 이 논문의 후속 논의로서, 구체적인 순서와 분석 방법이 동반되는 연구 방법론의 도출 및 공동 연구 현장에서 기대되는 인공지능의 문학 감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도전하는 긍정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Chang, M. S. (2012). Empirical sentiment classification using psychological emotions. (심리학적 감정과 소셜 웹 자료를 이용한 감성의 실증적 분류)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2(5), 563-569. DOI: 10.5391/JKIIS.2012.22. 5.563.
- Eliot, T. S. (1932). *Selected Essays 1917-1932*. London: Faber & Faber.
- Haugnes, N., & Maher, B. (2017) *North Star 2: Reading and Writing*. Hoboken: Pearson Edu.
- Keesy, D. (1987). *Context for Criticism*. Mayfield Publishing Co.
- Kim, Y. H. (1993) *Objectivity and Practical Horizons in Criticism*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Seoul: Changbi Publishers.

Lee, K. S. (2011) ed. *The Metaphysical Poetry* [형이상학
과 시] Seoul: Shin-a press.

Lodge, D. (1984). *20th century Literary Criticism* (J. K.
Yoon et als, Trans.). Seoul: 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Oh, J. S., Back, D. B., & Lee, D. H. (2020). Analytical
research on knowledge production, knowledge
structure, and networking in affective computing.
(Affective Computing 분야의 지식 생산, 지식 구조와
네트워킹에 관한 분석 연구)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3(4), 61-72. DOI: 10.14695/KJSOS.
2020.23.4.61.

Jung, M. H. (2023). Human emotion recognition technology
based on AI. (인공지능 기반 감정 인식 기술) in 2023
Spring Conference Proceeding, KOSES.

원고접수: 2023.09.20.

수정접수: 2023.11.30.

게재확정: 2023.12.01.